

한국어판 애니메이션 『삼국지』의 종류와 변용*

윤진현**

1. 『삼국지』와 애니메이션 『삼국지』
2. 애니메이션 『삼국지』 한국어판의 종류
 - 2-1. 오쿠다 세이지
 - 2-2. 시나노 키카쿠
 - 2-3. 『신삼국지』
3. 김청기 감독 『삼국지』의 특징
4. 맺음말

국문요약

활판인쇄로 발간된 한국어판 『삼국지』는 현재 확인된 것만 무려 400여종에 달한다. 여기에는 나관중의 원작을 청대의 모종강이 개작한 원본 『삼국지연의』와 일본의 근대 역사소설 작가인 요시카와 에이지가 새로이 쓴 『삼국지』, 한국인의 독자적 재창작, 평역본 등 다양한 형식의 판본이 섞여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만화판본과 영화, 애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연극 등 현재 유통되는 세부 문화장르를 망라해 볼 수 있을 만큼 『삼국지』 장르는 다양하다.

본고는 그중에서도 한국어판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삼국지』의 여러 종류와 변용 양상을 살핀 것이다. 한국어판 애니메이션 『삼국지』는 오쿠다 세이지 감독 작품으로 KBS에서 방영된 작품과 시나노 키카쿠 감독 작품으로 MBC에서

* 본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집필되었음. (과제번호: KRF-2004-074-AM0076)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방영된 작품, 그외에 비드콧사에서 출시한 『신삼국지』 등 일본계 작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청기 감독 고우영 각색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삼국지』가 주목할 만하다. 이중 오키다 감독의 KBS 방영판은 (주)대중영상에서 영어 학습용으로 제작하여 널리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급하다.

대표적인 한국계 작품인 김청기의 『삼국지』는 1편 각색자인 고우영의 영향으로 세부 사건이나 인물의 내력과 형상화에서는 대체로 요시카와 에이지 계열의 경향을 지니고 있으나 고우영 및 정비석 등의 한국 작가들의 상상력이 발랄하게 개입하고 있다. 아울러 섬세하고 여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인물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일본 애니메이션 『삼국지』와 비교할 때, 프레임 및 인물의 구성과 디자인 등이 다소 거친 점은 한계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점이 오히려 일본 애니메이션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애니메이션 하청국가라는 1980년대의 사회적 상황에서도 이 애니메이션 『삼국지』를 통해 나름대로 한국적 형상화의 초석을 쌓았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애니메이션 「삼국지」, 김청기, 오키다 세이지, 시나노 키카쿠, 고우영, 모종강 계열, 요시카와 에이지 계열, 교육용 영어 삼국지

1. 『삼국지』와 애니메이션 『삼국지』

2004년 9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삼국지』 한국어 역본과 서사 변용 연구”를 수행 중인 인하대학교 기초학문단은 2005년 6월 총 340여종의 판본의 서목이 실린 『『삼국지』 한국어 역본 해제』 자료집을 제작, 발표하였다. 이 해제 작업은 2006년 6월까지 계속되어 현재 수집된 한국어 판본은 무려 400여종에 이르고 있다. 과제 수행의 편의를 위해 2004년 이전에 발간된 판본으로 대상 판본을 한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본들이 발견되어 근대 이후 활판으로 발간된 판본의 수는 여전히 확정 지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 해제집에는 게임, 실용서만이 제외되었을 뿐, ‘서사’ 장르의 문학은 물론 만화,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LP판, 카세트, CD 등으로 유통되는 『삼국지』가 망라되어 있다.¹⁾ 이는 『삼국지』가 현재 유통되는 모든 문화장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형식의 게임과 같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유저(User)에 의해 새로운 줄거리가 생산되는 새로운 문화영역까지 포괄한다면 『삼국지』의 영역은 전통적인 문학의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관심은 주로 『삼국지』 자체에 대한 중국문학 관련 논문에 집중되어 있고 국문학의 영역에서는 판소리 『적벽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이들 광범위한 『삼국지』 관련 문학 및 문화 상품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삼국지』 관련 상품의 유통 실상을 점검할 때, 만화를 비롯, 아동용 축약본 등 특히 교육을 강조하는 어린이 대상 도서를 중심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복출판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작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존중한다고 해도 원작의 장점과 의의를 자의적으로 훼손한 저급한 판본이 마케팅의 성과와 원작의 명성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의 일반적인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삼국지』는 그다지 좋은 텍스트라고 할 수가 없다. 원작인 『삼국지연의』 자체가 이미 객관적 역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연의(演義)’로서 허구적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역사교육물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렇게 허구로서의 『삼국지』를 매개로 객관적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편, 『『삼국지』 한국어 역본 해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참고.

전제한다면, 문학 텍스트로서 『삼국지』는 발전이나, 변화·성장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영웅인 인물들의 끝도 없는 전쟁이야기일 뿐인 것이다. 『삼국지』의 문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문학 텍스트 『삼국지』가 지닌 다양한 실존 인물과 역사에 대한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그 장점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이는 축약이나 요약본보다는 원본 개념에 의거한 완역본을 전제로 가능한 것인 바, 축약본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아동 판본의 경우는 그 효용이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비나 제갈량 같은 인물은 『삼국지연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으로 우상화 또는 신화화되어 있기 일쑤이며 이러한 인물이 어린이들에게 생산적인 교훈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어린이 판본의 비중은 전체 『삼국지』 판본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필독서의 이데올로기가 어린이들에게마저도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애니메이션 『삼국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애니메이션 『삼국지』의 경우, 어린이의 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권장되면서 『삼국지』 필독서 이데올로기에 의거하여 KBS, MBC 등 공중파 TV에서 방송되었던 작품이 방송사의 공영성에 기대어 그 안전성과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작품인양 과장 광고되고 있으며 고액의 VHS 또는 DVD 제품으로 출시·유통되고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KBS에서 방영되었던 작품은 영어교육용으로 다시 제작되어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이들 『삼국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되어 수입 판매된 것이며 따라서 원작은 물론 표현과 해석에서 일본 분위기가 물씬하다. 물론 이들 『삼국지』의 일본 분위기 자체가 경계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수입된 작품의 원산지적 이해가 병행되지 않고는 작품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와 수용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깊이 있는 이해와 수용이 병진되지 않고는 이러한 수입문화로부터 새로운 창작력의 배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 목표와 필요를 성취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1차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하여 애니메이션 『삼국지』의 종류와 각 작품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삼국지』를 대표하는 김청기 감독의 작품을 살피고자 한다.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는 현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정도이지만 일본산 『삼국지』와 비교하여 그 차이와 공통점을 살핀다면 『삼국지』의 애니메이션 장르의 한국적 수용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애니메이션 『삼국지』 한국어판의 종류

애니메이션 『삼국지』는 크게 한국계와 일본계로 나눌 수 있다. 한국계로는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어린이용으로 보이는 송정훈 감독 우종구 각색의 『삼국지』 영화대본이 있다. 김청기 감독의 작품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현전하는 우종구 각색, 송정훈 감독의 『삼국지』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인 대본으로 1979년 7월 당시 공연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으며 중앙영화사 작품이라 밝혀져 있다. 총 40편의 짧은 작품으로 줄거리 또한 어린이용으로 매우 단순하다. 중국의 어느 성안 마을에 고을 성주가 국사는 멀리하고 술과 놀이만을 즐겨 백성의 원성이 높아졌고

이에 황건적이라는 도적떼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레이션으로 알려주고 이에 유비가 장비를 만나 '생사를 같이 할 동지'를 찾자, 장비가 관우를 추천하여 세 사람이 결의형제하고 도적의 괴수의 장각을 물리쳐 평화로운 마을을 되찾았으며 이후로 백성들은 자기 고장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았다는 간단한 이야기이다. 대본집에 『동물 보물섬』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의 간단한 만화영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통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삼국지』는 주로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 우선 1990년 오쿠다 세이지(奥田誠治) 감독의 일본 NHK방송에서 방영한 작품이 있다.²⁾ 이 작품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수입하여 방영하였고 현재 영어 교육용으로 제작되어 광범위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시나노 키카쿠 프로덕션에서 1992년에 제작하고 MBC에서 수입·방영한 바 있는 작품도 있다. 이것은 대체로는 요시카와 에이지 계열의 작품으로 볼 수 있으나 인물과 사건에서 상당한 변용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또 원작자나 감독 등은 미상이나 제작사가 비드콤포로 알려져 있고 미라클 상사에서 판매한 『신 삼국지』라는 작품도 있다. 이 또한 일본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2-1. 오쿠다 세이지

오쿠다 감독의 『삼국지』(1990) 한국어 더빙 제품은 (주)오아시스가 제작한 것으로 각 100분 VHS 12편, 총 1,200분 분량이 유통되고 있다. KBS 영상사업단에서 더빙·제작한 것을 그대로 비디오로 만든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총 47회 분량으로 '도원결의'에서 '적벽대전'까지가

2) DVD 제작은 Hikari Production / DaiNippon Printing, Co. Ltd.

이에 해당하며 이는 『삼국지연의』 전체로 놓고 볼 때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일본에서도 여기까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일단 수입된 후 후속 수입이 없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작품은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 요코야마 미스테루(横山光輝)의 만화를 원작으로 밝히고 있다.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삼국지』는 박영이 번역하고 대현출판사에서 발간한 한국어 판이 『전략삼국지』(60권, 1993)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³⁾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주요 인물의 성격과 사건 등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만화본은 일본 최대의 개작본인 요시카와 에이지의 작품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요시카와 에이지의 개작본은 1939년 8월 26일부터 1943년 9월 5일 일본의 『추가이쇼교신포(中外商業新報)』에 연재된 작품이며 우리나라에는 『경성일보』에 1939년 9월 20일부터 1943년 9월 14일까지 연재, 발표되었다.

중국 전통시대의 대표적 판본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나관중 원작으로 알려진 『삼국지』는 청대 강희제 연간에 모종강이 개작한 것이다. 요시카와 에이지 판본의 특징은 우선 모종강 개작의 『삼국지연의』가 지닌 청대의 장회소설적 구성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말하기(telling)’보다는 ‘보여주기(showing)’에 집중된 근대소설적 쓰기 방식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에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묘사에 치중하여 전래의 ‘축한정통론’에 치우친 ‘연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삼국지』 제 영웅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구축한 중요한 작품이다. 예를 들면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등 『삼국지』 주요 인물의 내력과 성격 등을

3) 같은 작품이 1990년 자유시대에서 출간된 바 있다. 1993년에 대현출판사와 새로이 수입판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역사서 등을 참고, 상세히 구축하여 이후의 『삼국지』에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특히 유비가 관우, 장비와 만나자마자 결의를 한다는 모종강본의 설정을 보완하여 흥부용을 매개로 장비와 인연이 있던 유비가 이미 형제간으로 지내던 장비와 관우를 만난다는 것으로 사건을 보충하여 근대 독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돌연한 도원결의 사건의 비합리성을 개선하였다. 여기에는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귀한 차를 구입하고 이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일화가 삽입되어 있는 바, ‘차’를 매개로 하는 일본 문명론과 요시카와본 발표 당시인 1939년의 중일전쟁 상황이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다. 일본미술사학자 오카쿠라 텐신은 ‘전쟁을 통해 문명이 되느니 차를 마시는 야만으로 남겠다.’는 언명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청일전쟁의 승리를 전제로 한 자신감의 표현에 다름 아니었으며 나아가 이 통합적 진술은 요시카와에 이르면 이것이 문명의 증표인 ‘차’와 전쟁의 증표인 ‘칼’을 대비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설적 해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차를 찾은 보답으로 장비에게 칼을 건네는 유비와 ‘칼’ 대신 차를 찾아온 유비를 질책하며 ‘차’를 버리는 유비 어머니의 대조적 형상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⁴⁾

또한 동탁과 여포의 연환계에 동원된 ‘조선’이 자결하는 사건 또한 모종강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모종강본 『삼국지연의』는 동탁이 죽은 후 조선이 여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간계의 주동자였던 조선이 여포와 다시금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근대독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용이하지 않고 아울러 대의에 동원된 조선이 의리부동하고 미련한 여포 따위와 어울린다는 것도 부자연하다고 느낀 결과일

4) 권용선,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의 수용과 사적 의미」, 『『삼국지』의 변이양상과 한국문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기초학문연구팀 심포지움 자료집, 2006. 5. 26, 44-45쪽 참조.

것이다. 제갈량의 가계와 재능을 성장과정에서부터 분명히 밝힌 것 또한 요시카와본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만화판 역시 요시카와 개작본의 자장 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으로 1974년 4월 조(潮)출판사에서 초판이 발간된 이래 출판 8개월 만에 69쇄를 찍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모은 바 있다. 그러나 요코야마 만화판의 경우, 소설 원작인 요시카와 에이지(吉川永治) 판에서 형상화된 주인공 유비가 차(茶)를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건적을 만나 고초를 겪고 홍부옹을 만나 가연을 맺는다는 첫머리의 독창적 설정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데 반해 오쿠다 감독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내용이 다소 다르다. 행패를 부리던 관군을 혼내주고 도망치던 장비가 차를 들고 오던 유비와 마주치고 이어서 공손찬으로부터 유비를 소개받은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만나 유비집에 머물면서 서로 친해지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차(茶)에 관한 요시카와의 독창적 상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요시카와 계열에서 서사의 기초를 빌어온 것을 알 수 있으나 도입부의 사건은 요시카와 에이지 개작본과는 물론이요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작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유비의 인간관계 및 혼인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보통은 황건적에 대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보고 유비, 관우, 장비가 만나 결의형제를 맺게 되는 것이 잘 알려진 기본 서사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황건적의 약탈로 마을이 불타고 여기에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향란’이란 소녀가 고아가 되자 이를 보고 분격찬 유비가 백성을 살리겠다는 결심으로 황건적 퇴치에 나서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향란이란 소녀는 유비 어머니의 양육으로 성장하고 유비 어머니의 유언으로 후일 유비의 아내가 되어 모종강본 미부인의 예에 따라 아두를 살리고 죽음을 택한다. 가족 같은 또는 후일 가족이 되는 향란이 때문에 의병을

결성하고 황건적을 격퇴하기 위해 나선다는 설정은 현대 영화에서 가족 수호자이며 구원자인 가족영웅서사와 인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건의 전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제갈공명의 역할이다. 요시카와본의 경우, 제갈공명의 등장은 모종강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야에 주둔한 유비가 조조의 계략에 빠진 서서를 보내면서이다. 그러나 오쿠다의 작품에서 제갈양은 일종의 병렬 서사에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어린 제갈양을 비롯, 삼고초려 이전부터 빈번히 등장한다. 특히 출사 이후에 제갈양은 나레이션 등에서 그 의견 등이 집중적으로 개진되어 앞일을 예견하는 등 그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유비를 능가하고 있을 정도인데 ‘적벽대전’에 즈음하여서는 제갈양의 여동생이 등장하기까지만다. 제갈양의 여동생은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후 제갈양을 잡으려온 주유군을 따돌리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는 요시카와본은 물론 요코야마 미스테루본에도 없는 인물이다. 여성 인물이 특히 취약한 『삼국지』의 인물 구도가 소설이나 만화에서와는 달리 애니메이션에서 특히 결점으로 두드러지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인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오쿠다의 『삼국지』는 현재 유통되는 작품들 중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고 내용에서도 큰 축약이나 생략 없이 기본 줄거리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염 없이 소년풍의 수려한 용모이던 유비가 수염이 나고 중후한 느낌의 장년으로 변화해 가는 등 세부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이 판본과 관련하여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이 작품으로 제작된 교육용 애니메이션 『삼국지』이다. 현재 애니메이션 시장의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중영상의 『영어로 듣고 말하는 삼국지(The Quest of Three Kingdoms)』이다. 일본 히카리(Hikari)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 바, 일본에서 판매용 비디오를 제작한 회사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대중영상에서 수입하여 영어 대사를 더빙하고 여기에 한글자막을 덧입혔다. 한글 자막은 원작에 대한 이해나 고증과정 없이 KBS에서 방영한 한국어 더빙제품을 녹취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KBS에서 방영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성우들의 비표준 발음이나 녹취상 오해하기 쉬운 발음 등의 경우, 표기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VHS, DVD 2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상영시간은 총 1,128분이다. (주)오아시스의 비디오판 총 1,200분과 비교할 때 차이는 72분은 각 편 3분 시그널 타임의 유동적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중영상에서는 이러한 전편 판매 이외에도 6개의 VHS만을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고 같은 제품을 MAX ENGLISH사에서는 별도의 구동 프로그램을 덧붙여 영어 공부를 위해 매우 유용한 것으로 광고, 판매하기도 하는 등 요컨대 같은 제품으로 다양한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인 광고 전략은 영어 학습용이라는 사실과 중국 5천년 역사의 영웅호걸들의 대활약을 그린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이다. 영어 대사의 정확성도 짚어볼 문제려니와 번역문 또한 매우 졸렬하며 표기 등에서 오류를 낸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유비의 첫부임지였던 안희현(安喜縣) 현위(縣尉)를 ‘안의현 현의’라고 자막 및 대본에 표기하였고 고을을 순회하며 감독하는 관리인 ‘독우(督郵)’를 ‘도구’로 읽기도 하였으며 ‘전군교위’였던 조조의 벼슬을 ‘전군교의’로 쓰기도 하고 동탁의 참모였던 ‘이유’를 ‘이위’로, 장군 ‘주전’을 ‘추종’, 조조의 세가가 있던 ‘진류’를 ‘질리’라고 쓰기도 하는 등, 원작에 대한 고증 없이 발음에 따라 편의적으로 기록한 오류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교육산업의 미명 하에 조악한 텍스트를 고액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2. 시나노 키카쿠

애니메이션 『삼국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또다른 작품으로는 일본 Enoki Films사가 제공하고 시나노 키카쿠(Shinano Kikaku)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삼국지』(1992년)가 있다. 이는 MBC에서 수입 방영하였으며 (주) RGB 프로덕션에서 각 편 50분짜리 VHS 9개로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를 다시 비엠펜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비디오 테이프와 DVD 2종으로 유통되고 있다.⁵⁾

이 작품은 유비 삼형제를 중심으로 삼국지의 사건들을 재구성하였으며 원작에 없는 새로운 사건 등을 보태었다. 이 작품은 대체로 독자적인 사건 구성과 에피소드의 도입으로 독자적 재창작 계통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도입부에서는 유비가 말몰이꾼으로 말장수에게 고용되어 말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용기 있고 의협심 강한 청년으로 등장하며 말을 빼앗으려는 황건적을 만나 물리치나 재차 마을로 침략하여 현령의 딸을 납치하려는 황건적의 손에서 현령의 딸, 여화를 구한다는 로맨스가 가미되어 있다. 헤어진 여화는 유비가 서주로 도겸을 구원하려 간 길에서 다시 만나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유비의 부인은 나관중 작, 모종강 개작의 중국 『삼국지연의』에서는 제업을 이루기 전에는 감부인, 미부인 등 2명이 등장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화 1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유명한 당양현 장판교 싸움에서 자신과 유선을 구하러 온 조자룡

5) 같은 작품으로 계몽사에서 제작한 것도 있다. 이는 계몽사에서 판매 중인 65권 분량의 『밀리니엄 삼국지』에 보너스로 배포되었다. 참고로 이 『밀리니엄 삼국지』는 허웅 작화로 알려진 (주)한국크레온, (주)한국뉴턴 등의 회사에서도 『디지털 삼국지』, 『슈퍼 삼국지』 등으로 출판된 바 있다. 이는 내용상 요시카와 에이지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으나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전략 삼국지』에 기초한 컷 구성과 디자인으로 구도나 인물 위치, 대사, 배경 설명 등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요코야마본의 카피본에 불과하다.

에게 아들을 맡기고 자결한 미부인의 일화에 따라 자결한다. 유비는 이 후에도 손권의 누이, 손부인과 유모의 미망인이며 오의의 누이인 오황후 등의 부인을 얻었고 오황후에게서는 아들 둘을 더 얻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여화 이외의 부인은 등장하지 않으며 아들도 유선 한 명뿐이다. 장비는 무식하지만 힘이 세고 의협심이 강한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관운장은 혼장노릇을 하고 있으나 탐관오리를 살인하여 도피 중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누상춘과 뽕나무, 유비의 운명 등에 대해서는 무명의 이인이 예언이 남겼다는 방식으로 강조되어 있다. 또한 유비, 관우, 장비가 결의를 맺는 장소가 유비의 집 후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유비의 모친의 역할 등이 강화되어 있다.

이것은 핵가족 중심의 근대 가족 이데올로기와 효도의 의미로 볼 때, 2명 이상의 부인이 있다거나 가족을 버리고 대의에 목숨을 바치는 유비 등의 행적이 불효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여 주요 관객인 어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부일처제의 가족 제도와 자식의 앞날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그 외 주요 인물로는 제갈량이 가난하고 불우한 성장 시기부터 형상화되어 있는 바, 이는 제갈씨의 유래와 이주 등을 다룬 요시카와 에이지 계통의 작품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추녀이나 기상이나 품성에서 거칠 것이 없는 시녀 '수란'이란 인물을 배치하여 유비의 삼고초려에 세상으로 나설 것을 결심한 제갈량이 '치천하를 이루면 돌아와 수란과 결혼하여 살겠다'는 말을 남기는 장면을 삽입하였다. 이 '수란'이란 인물은 조조를 막기 위해 오나라에 간 제갈공명의 소식을 알기 위해 파견하는 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형주를 차지한 후 제갈량과 혼인하는 주요 조연 중 하나이다. 제갈량의 부인 황씨가 용모는 추하나 제갈

양과의 사이는 좋았다는 것은 이전의 설화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나 모종강본에는 언급되지 않고 요시카와 에이지 계열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장인 황승언 등의 역할은 삭제되었고 ‘시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설정이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의 부인 황씨에 대한 전래의 성격이 나름대로 고려되어 재치와 유머가 잘 어울리는 성격으로 형상화되었다.

또 특기할 사항으로는 관우의 딸 ‘봉희’란 인물이다. 본래 관우에게는 관평이란 양자가 있고 관홍이란 친자가 있어 아버지의 위명을 잇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관우가 전쟁터에서 우연히 목숨을 구해준 여자아기를 직접 돌볼 수 없어 한 노파에게 딸이라 하며 맡겼다는 일화가 소개되고 그 아기가 성장한 ‘봉희’라는 처녀가 등장하여 무공을 자랑한다. 봉희는 마속의 아내가 되었다가 후일 제갈공명의 유언을 받들어 오장원에서 사마의의 군사를 물리치고 촉군을 무사히 귀환케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요시카와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일화나 사건은 모두 생략되었으며 원작에 없는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여화, 수란, 봉희 등 원작 『삼국지』에는 없는 이러한 새로운 여성인물의 등장은 전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여성 인물이 부족한 『삼국지』의 단순한 인물 구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이들을 활용한 멜로 라인을 보조 플롯으로 활용하여 전쟁 일변도의 단순한 사건 형식 또한 보완하려는 의도가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보다 화려한 화면을 구성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여성 관객의 감정 이입을 수월케하는 효과 또한 창출해 낸다.

다만 번역에서 인명이나 지명 등에서 오류가 눈에 띄며 조조나 주유 등의 인물을 ‘각하’로 호칭하기도 하는 등, 일본어 원작의 흔적이 남아있

다. 더빙을 맡은 성우의 발음 등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하다.

2-3. 『신 삼국지』

일본 시나노 키카쿠 그룹의 삼국지와 인물의 형상과 프레임의 구성이 매우 비슷하나 줄거리나 사건은 전혀 다른 독자적 재창작본이다. 주제가로 쓰인 배경음악에서 들리는 가사가 일어난 점으로 보아 원 제작지는 일본인 듯하다. 그 외에 원제작자나 감독에 대한 정보 또한 전혀 들어있지 않다. 전체적인 작화 및 동화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원작에 대한 이해나 독창적 해석은 전무하다. 제작연도는 1990년으로 밝혀져 있으며 (주)비드콤에서 제작하고 (주)미라클 상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작품의 초반, 제갈공명은 제자인 여화에게 유비의 구원을 지시하는 숨은 구원자 역할을 수행한다. 여화는 시나노 키카쿠 작품에서는 유비의 아내가 되는 인물로 유비의 두 번째 부인인 미부인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오나라의 공주인 손부인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무공이 뛰어난 무협의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화는 제갈공명의 명을 받아 유비를 구원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사랑에 빠져 갈등하는 것이 주요 사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물의 형상과 액션은 사실성과 개연성에서 함량 미달인 바, 예를 들면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와 유비를 구하여 하늘로 달아난다는 식으로서 역사적 혹은 사실적인 소재 및 상상력과는 거리가 멀다. 인물의 형상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형적인 ‘소녀 전사’ 식의 짧은 치마와 부츠에 가슴을 드러낸 모습으로 그려졌다. 변신을 통해 괴력을 갖게 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상상력에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의 구성이 결합되고 여기에 삼국지의 인물이 혼종된 통속해적판으로 판단된다.

작품은 1편 도원의 맹세, 2편 적벽대전, 3편 대장부의 길로 구성되어 있고 해설상으로는 위·오·촉 삼국의 정립 시기까지에 이르는 것으로 포

장 결면에 소개되어 있으나 정작 삼국지 본래의 줄거리와는 무관하게 거듭되는 조조, 손권·주유의 비겁한 공격에 유비·관우·장비 등이 장렬하게 싸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번역된 주제가는 엔카풍으로 모든 것이 덧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김청기 감독 『삼국지』의 특징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 대본은 현재 2종이 전한다. 송프로덕션이 제작한 고우영의 각본 ‘한국 최초의 2시간 상영 장편 역사 만화영화 라는 수사가 붙은 필기등사본 『삼국지』와 ‘한국 최초의 2시간 상영’이라는 부분을 같은 색깔의 종이로 붙여 지우고 ‘장편 역사 만화영화 라는 수식만 남은 『삼국지 <제1편>』의 타이프라이팅 등사본 대본이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접수 도장에는 전자의 경우 1979년 7월 11일이란 날짜가 ‘제 88호’라는 번호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후자에는 1979년 7월 26일이란 날짜와 함께 ‘제 22호’라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는 처음에는 한국 최초의 2시간짜리 만화영화로 기획되었으나 심의를 받는 시간 동안 기획이 변경되어 총 80분의 일반적인 규모의 극장용 만화영화로 바뀌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공윤의 심의 또한 최소한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작품은 이들 심의용 대본과는 다르다.

우선 첫번째 대본의 경우, 어린 제갈량이 등장하여 나레이터를 겸하고 모종강 계열의 줄거리를 취하여 대체로 원전의 인물이 그대로 형상화되고 사건이 차례로 재현되어 동탁을 타도하기 위해 왕윤이 연환계를 쓰는 대목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갑자기 제갈량의 초려가 등장하고 동탁이 죽었다는 사실이 보고되며 평원에서 유비 삼형제가 군사를 조련하는 장면을 엔딩으로 삼고 있다. 두번째 대본의 경우는 주요 내용에서

는 첫번째 대본과 대동소이하나 우선 나레이터였던 제갈양이 삭제되고 나레이션은 그저 무성격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또한 서둘러 말미를 장식했던 제갈량의 초려 또한 사라지고 나레이션으로 동탁이 죽었음을 설명하면서 평원현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유비 삼형제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것으로 대미를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모종강본에 충실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애니메이션 『삼국지』가 요시카와 에이지 계열의 줄거리를 지니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바, 심의를 받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대본인 듯하다. 다만, 도입부 이후의 줄거리 등은 대본과 같은 흐름으로 형상화되었다. 또 1편이 평원현으로 달리는 유비 삼형제의 모습으로 끝난다는 설정은 속편 또는 연속 제작을 염두에 두었던 당시의 기획에 맞물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1편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애니메이션 『삼국지』는 제작 송재완(송프로덕션), 기획 김상호·김경하, 각본 고우영, 감독 김청기로 당시 일간스포츠에 『삼국지』를 연재 중이던 고우영이 각색을 맡은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삼국지』는 항간에 총 3편으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총 2편이다. ‘1편 도원결의’와 ‘2편 타도 동탁’, ‘3편 오관돌파’라는 것이 3편이라는 일설의 주된 내용인데, 사실은 ‘1편 도원결의’, ‘2편 관우의 오관돌파’로 2편에 동탁을 타도하는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총 2편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현재 유통되는 것도 이 두 편뿐이다. 이들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는 1983년에 뉴비디오프로덕션에서 비디오로 출시된 바 있고, 1993년에 (주)서울동화에서 다시금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영음사에서 DVD로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중 뉴비디오프로덕션에서 제작, 판매한 제품과 영음사에서 DVD로 제작,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1~2편의 제품 자켓이 같고 각색을 일괄

‘고우영’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고우영은 『삼국지 1편 도원결의』에만 각색으로 참여하였고 ‘2편 관우의 오관돌과 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작품에서 공개하는 스태프 명단에도 고우영의 이름은 없다. 이것은 고우영 개인의 『삼국지』 작업과 어린이를 주요 관객으로 삼고 있는 만화영화의 각색 작업이 병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2편은 김청기 감독의 주도 하에 각색이 이루어졌던 듯 김청기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코믹 성격의 어린이 인물, ‘왕발이’가 원작과 무관하게 등장하여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 때문에 왕발이와 콤비를 이루는 장비의 성격이 보다 희극적으로 변화한다.

그 제작연대에서부터 훨씬 앞서는 김청기의 『삼국지』는 이후 등장하는 일본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 역동적인 작화는 실사 영화를 방불케 하고 낙양성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격렬한 전투신은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삼국지』 각 인물의 개성이 나름대로 살아있는 캐릭터 또한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1편의 경우, 고우영의 재치 있는 작풍이 곳곳에서 드러나 그 묘미를 더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도원결의 장면을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로 보자. 모종강본에 따르면 이들은 ‘검은 소와 흰 말과 그 외의 제물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고 요시카와본에 따르면 ‘흙으로 만든 백마를 제물로 삼아 천신(天神)에게 제사지내고 오우(烏牛)를 잡은 썸 치고서 지신(地神)에게 제사지냈다’고 되어 있다. 근대소설적 문법에 따라 재창작된 요시카와 에이지본의 『삼국지』는 사건 전개와 합리성과 흥미성이 강화되고 인물의 기원 등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는 바, 가난한 유비 등의 3형제가 흰 말과 검은 소를 실제로 잡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고우영의 『삼국지』에는 이인(異人) 한 명이 찾아와 뽕나무와 지기(地氣)의 상서로움을 예찬하고 “그날 이것으로 제물을 삼

아 주소서.”라는 말과 함께 염소 한 마리를 두고 가는 장면이 결의에 앞서 제시되고 결의 장면에서는 이 염소를 제물로 잡아 진설하였다. 유비, 관우, 장비가 나란히 선 제사상 위에는 제물로 염소 한 마리가 발랑 누워 있고 유비의 근엄한 제문 낭독이 이어지는 중에 장비의 대사가 나란히 말풍선에 담겨 “마, 가랭이 오무려.”라고 병기된다. 이 의외의 대사는 고우영 만화의 희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근엄한 결의 장면에 가랭이를 오무리라는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사가 돌출함으로써 엄숙성은 균형을 잃고 독자는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염소가 출현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다. 요시카와 에이지의 『삼국지』에서의 결의 장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흙으로 만든 흰 말과 검은 소’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런데 요시카와 에이지는 유비가 사는 집에 자란 거대한 뽕나무의 의미를 이정(李定)이라는 기이한 노인의 등장으로 설명한다. 누상촌(樓桑村)이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할 만큼 유명한 이 뽕나무는 그 모양이 천자가 타는 거개와 같은 영목(靈木)이라는 것인데 모종강본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를 두고 어린 유비가 ‘자라서 천자가 되면 그 같은 수레를 타겠다’고 하고 유비의 숙부 유원기(劉元起)가 이를 듣고 비범하게 생각하여 유비를 돌봐준다는 정도로 나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요시카와는 이러한 정보를 기이한 노인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노인은 물고 온 ‘눈처럼 흰 산양’을 유비와 그의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떠나는 것이다. 이 산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나오지 않으나 도원에서 결의를 맺은 후, 유비 어머니가 베풀어주는 잔치에 나오는 음식으로 ‘산양 국 냄비’가 있어 음식재료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우영 『삼국지』에서는 결의에 쓰일 제물로 바뀌고 그 프레임이 그대로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에 쓰인다.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에서는 엄숙과 유머가 교차하는 고우영 특유의 장

면 분위기는 사라졌으나 작화의 기본적 설정에 고우영의 상상력이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고우영의 『삼국지』는 그 독창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요시카와 에이지 계열의 줄거리를 준용하고 있는 바, 고우영이 각색으로 참여한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 또한 이에 준한다. 차를 지닌 유비가 객관에서 자고 있는 즈음에 황건적이 침입하여 불을 지른다. 꿈에 어머니를 만나고 있던 유비는 꿈 속에서 자신의 집에 불이 붙은 것에 놀라 깨어나고, 깨어나 보니 객사에 화재가 나 있고, 이를 피하려다가 황건적과 맞부딪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황건적의 숙영지까지 끌려간 유비가 홍부옹을 만나 함께 도망치며 장비를 만나게 된다는 설정 또한 요시카와 에이지본과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프롤로그에 동화(動畫)가 아닌 단색의 그림 슬라이드가 당시의 혼란한 상황을 설명하는 나레이션과 함께 제시되는 점은 2차 대본에서 발견되는 바와 유사하다.

‘2편 관우의 오관돌파’ 편은 1편의 각색자인 고우영이 이탈함에 따라 김청기 감독의 특징이 좀더 두드러진다. 김청기 감독은 대표작 『로보트 태권V』 등에서 ‘강통로봇’ 등으로 알려진 독창적인 캐릭터를 개발했던 바, 이 작품에서도 앞서 언급한 ‘왕발이’라고 하는 어린이 주인공이 등장한다. 재주 있고 총명하며 돌팔매의 명수인 왕발이는 돌팔매를 날리며 유비 삼형제와 함께 싸우는 등 사건의 전개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장비와 짝을 이루어 함께 싸우면서 작품상의 희극성을 주도한다. 특히 급히 달려가느라 바지가 흘러내리는 장면은 김청기 감독이 이들 ‘왕발이’ 유형의 어린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던 것이다.

작품은 1편과 같은 그림 슬라이드로 한나라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며 1편에 이어 유비가 평원현령으로 있던 무렵부터 시작된다. 왕윤의 연환계에 걸려 동탁이 죽고 이어 발발한 이각 광사

의 난을 평정한 조조가 황실을 농단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유비는 조조의 그늘을 벗어나 서주로 피해 간 후, 조조와 대결하다가 패퇴한다. 관우가 부득이 항복한 후, 원소 휘하에 있던 유비의 소식을 듣자 오관을 돌파하며 용맹을 보이는 부분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관우가 안량과 문추를 죽이자 원소 진영에 있던 유비가 투옥되고 이를 조자룡이 구하여 함께 달아나다 위기에 처하자 때맞춰 나타난 관우와 장비, 왕발이 구한다는 원작과 다른 내용이 대미를 이루고 있는 바, 이러한 설정은 김청기 감독의 독자적 재창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에서 구현되는 가치관은 유비 삼형제와 제갈량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축한정통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체로 나관중 원작, 모종강 개작본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시카와 에이지 개작본 『삼국지』의 특징은 근대적 소설작법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인물의 객관적 형상화와 합리적 설명이 중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조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부상(浮上)으로 나타난다. 조조의 북위(北魏)를 정통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진수(陳壽)의 정사 『삼국지』와는 달리 『삼국지연의』가 유비의 서촉(西蜀)을 정통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여러 역사적 해설에서 기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삼국분립이란 1강(強)의 북위, 1중(中)의 동오(東吳), 1약(弱)의 서촉으로 중원의 주요 지역을 모두 망라하고 있던 위나라와 강동의 6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나라는 익주 한 곳을 중심으로 삼고 있던 촉과는 대등한 차원에서 비교될 수 없는 점이 있다. 따라서 역사기록 등을 근거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구축하고자 시도하는 순간 조조의 부상은 필연적인 일이 된다. 조조는 사실 출신 가문, 문화적 교양, 지략과 리더쉽 등 지도자로서 다방면에서 유비를 능가하였다. 물론 요시카와 에이지의 개작본이 조조를 의도적

으로 격상시키고 유비를 폄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근대 역사소설가로서 요시카와 에이지가 지녔던 집필 태도는 기존의 모종강 개작본이 지닌 조조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태도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조에 대한 우호적이며 긍정적 가치관을 널리 유포시키는 시발점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조조에게 항복하였던 관우가 유비의 소식을 듣고 오관을 돌파하며 단기로 천릿길을 가는 사건은 『삼국지』 최대의 미담이라 할 만하다. 모종강본은 이 장면에서 조조가 선물을 베풀려하나 관우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오직 비단전포 하나만을 받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조는 관우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요시카와본에서는 사뭇 다르다. 우선 관우를 대하는 곡진한 태도도 훨씬 강화되어 있으며 모본에서는 거절했던 금은(金銀) 등의 여비도 유비 부인들의 간구함을 핑계로 결국은 받아넣도록 만든다. 아울러 관우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을 높이 일컬어 막하의 제장들에게 훈계하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형상화하였다. 아울러 요시카와 에이지는 다음과 같은 조조에 대한 평언을 덧붙이고 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면 조조는 무장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자기 성격 속에 있는 착한 성질과 악한 성질도 분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써 어진 장수가 되려고 명심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게다.⁶⁾

그러나 이러한 조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선악의 대립이 분명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일본에서 제작된 작

6) 요시카와 에이지 저. 이용호 역, 『삼국지』3, 선일문화사, 1982, 17면.

품의 경우에도 조조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평가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고 유비와 조조의 대립이 좀더 단순한 선악 갈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다만 조조의 경우, 『삼국지』의 서사가 비교적 충실하게 형상화되면서 뛰어난 지략과 막후의 제장에게 보여주는 도량 등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며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일본판의 원작에서 비롯된 점으로 볼 수 있다.

김청기 감독의 『삼국지』는 직접적인 선악 대결이라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갈등구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인물의 형상화에서부터 조조를 비롯, 동탁, 여포 등 부정적인 인물군의 경우, 그 부정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동탁의 경우는 뚱뚱하고 욕심 많은 인물로, 여포의 사위 이유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으며 여포의 경우는 미련하고 조조는 간교하고 날카로운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반면에 유비 삼형제는 대체로 수려한 외모와 중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형상화되었으며 거칠고 험상궂은 장비조차도 때때로 애교 있고 귀염성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친숙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즉 유비 등의 인물은 매우 긍정적으로, 조조 등의 부정적 인물은 보다 철저히 악인으로 형상화하여 선악의 대립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더욱이 조조의 승리나 유비군의 패퇴는 정당한 실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간교한 조조군의 음모에 유비가 희생되었다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천하를 걱정하는 유비의 입장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모종강분의 태도와 가치에 보다 경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로써 『삼국지』라는 텍스트가 지닌 기본적인 다양성이 사장되고 유비 삼형제 등의 우국충정만이 단선적으로 강조되어 마치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제2편 관우의 오관돌파>의 경우는 왕발이 등의 새로운 인

물이 보여주는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장면 묘사 이외에는 잦은 나레이션과 사건 중심의 요약적 전개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물의 성격과 사건에서 드러나는 『삼국지』의 전형적 묘미가 제대로 형상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4. 맺음말

활판인쇄로 발간된 한국어판 『삼국지』는 현재 확인된 것만 무려 400여종에 달한다. 여기에는 나관중의 원작을 청대의 모종강이 정리한 『삼국지연의』와 일본의 근대 역사소설 작가인 요시카와 에이지가 새로이 쓴 『삼국지』, 한국인의 독자적 재창작, 평역본 등 다양한 형식의 판본이 섞여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만화판본과 영화, 애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연극 등 『삼국지』 장르는 다양하다.

본고는 그중에서도 한국어판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삼국지』의 유통과 변용 양상을 살핀 것으로 애니메이션 『삼국지』는 오쿠다 세이지 감독 작품으로 KBS에서 방영된 작품과 시나노 키카쿠 감독 작품으로 MBC에서 방영된 작품, 그외에 비드콤사에서 출시한 『신삼국지』 등 일본계 작품이 있고 우리나라의 작품으로는 김청기 감독 고우영 각색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삼국지』가 주목할 만하다. 이중 오쿠다 감독의 KBS 방영판은 (주)대중영상에서 영어 학습용으로 제작하여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저급한 바, 『삼국지』가 필독서라는 이데올로기 및 이러한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계 작품은 주로 어린이 시청자를 상대로 하는 작품의 수용 특성상, 원작의 인물이나 가족 관계 등이 변화하여 일처다부제의 전통적 가

족제도는 일부일처제로 일괄 변화하였고 아울러 여성 인물이 취약한 원작의 한계를 새로운 여성인물을 고안 배치하는 것으로 극복하려하였다.

대표적인 한국계 작품인 김청기의 『삼국지』는 1편 각색자인 고우영의 영향으로 세부 사건이나 인물의 내력과 형상화에서는 대체로 요시카와 에이지 계열의 경향을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모종강 계열의 작품 줄거리를 토대로 선악의 대립구도가 보다 강화된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섬세하고 여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인물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일본 애니메이션 『삼국지』와 비교할 때, 프레임 및 인물의 구성과 디자인 등이 다소 거친 점은 한계이면서 특징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고우영, 『고우영 삼국지』1-10, 애니북스, 2004.
김청기 감독, 『삼국지』(DVD), 영음사, 2003.
김청기 감독/고우영 각색, 『삼국지』, 송푸로덕션 1979.7.11.
김청기 감독/고우영 각색, 『삼국지』, 송푸로덕션 1979.7.26.
나관중 원작/모종강 개작/김구용 역, 『삼국지연의』, 솔출판사, 2003.
송정훈 감독/우종구 각색, 『삼국지』, 중앙영화사, 1979.
시나노 키카쿠, 『DVD 삼국지』1-3, 비엠펙코리아, 2003.
오쿠다 세이지, 『삼국지』(VHS) 1-12, 오아시스, 1996.
오쿠다 세이지, 『영어로 듣고 말하는 삼국지』1-24, 대중영상, 2004.
요시카와 에이지 원작/이용호 역, 『삼국지』1-5, 선일출판사, 1983.
요코야마 미스테루/박영 역, 『전략 삼국지』 1-60, 대현출판사, 2002.

2. 논문 및 단행본

- 권용선,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의 수용과 사적 의미」, 『삼국지의 변이 양상과 한국문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기초학문연구팀 심포지움 자료집, 2006.5.26.
김명배, 『일본의 다도』, 보림사, 1987.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학』, 향연, 2005.
서경식/이목 역, 『본디 한 뿌리에서 자라났건만 - 삼국지』, 『소년의 눈물』 돌베개, 2004.
윤진현, 「박태원 《삼국지》 판본 연구」, 『한국학연구』 14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10.
인하대학교 기초학문연구단, 『《삼국지》 한국어역본 해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표세만, 「명치소설에서 현대 애니메이션과 만화까지」, 『일본어문학회 편, 『일본어문학』 25집, 2005.
한창완,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영상전략』, 한울아카데미, 2001.

Abstract

Kinds and Acculturation of Korean Animation [Sanguozhi]

Youn Jin-heon

Korean [Sanguozhi] which was published in type printing, are as many as 400 kinds. There are mixed variety text forms: Mo Jong-gang's [Sanguozhi-Yanyi], Yosjkawa Eiji's [Sanguozhi], and korean independent rewriting, annotations etc. In addition, there are lots of [Sanguozhi]'s genres as much as existing genres: many cartoons, movies, animations, radio dramas, plays etc.

This thesis intends to consider kinds and acculturation of Korean animation [Sanguozhi]. Okuda Seiji's [Sanguozhi] was aired in KBS. It is widely circulated for English education by Daijongyoungsang(대중영상) Co., however, its standard is very low. Moreover there are Japanese party animation [Sanguozhi] which are Sinano Kikaku's [Sanguozhi] in MBC and [New Sanguozhi] by Bidcom Co. In Korean party animation [Sanguozhi], I pay attention to Kim Cheong-gi's [Sanguozhi] which Go Woo-yeong was adapted.

Kim Cheong-gi's [Sanguozhi] generally belong to Yosjkawa Eiji's Party in character's personal history and form conversion because of Go Woo-yeong who was acapted the first part. Nevertheless there are reflected in korean writer's imagination: Go Woo-yeong, Jeong Bi-seok etc. In comparison with Japanese animation [Sanguozhi] which has sensitive, feminine, and unrealistic

characters in the main current, it has a few limitations of frame, organization of characters and design. However it is also feature of Korean animation [Sanguozhi] different from Japanese. Korean animation [Sanguozhi] has historical meaning to escape from subcontract country of animation.

Key Words

Animation [Sanguozhi], Kim Cheong-gi, Okuda Seiji, Sinano Kikaku, Go Woo-yeong, Mo Jong-gang' Party, Yosjkawa Eiji's Party, [Sanguozhi] for English Education

* 위 논문은 2006년 4월 25일 투고되어, 11월 27일 심사 완료 후, 12월 8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